

행정규제정책순응에 미치는 학습지능과 사회지능의 영향력 비교

하 옥 현*, 오 세 윤**

The Comparison of the Impact of IQ and Social Intelligence on the Compliance with Administrative Regulatory Policies.

Ok Hyun HA*, Sae-Yoon Oh**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지능과 사회지능이 행정규제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발견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습지능과 사회지능 사이의 상관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학습지능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회지능이 이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지능이 학습지능보다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회지능을 무시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행정규제정책의 전반적인 순환과정에 사회지능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관여되도록 정책 당국과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impact of intellectual quotient and social intelligence on compliance with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policies. This study found two things. The first one is the correlation between intellectual quotient and social intelligence is not so high. No matter how high is his or her intellectual quotient may be, it cannot be said that his or her social intelligence will be high in proportion to IQ. The second one is the influence of social intelligence on administrative regulatory policies is bigger than that of intellectual quotient. So to execute a policy efficiently, we cannot succeed without consideration to the factors of social intelligence. The result of analysis implies that policy authorities and the concerned citizens should try to get the social intelligence factors involved in all processes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policies such as agenda setting, decis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feedback.

▶ Keyword : 학습지능(intellectual quotient),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 정책순응(policy compliance)

• 제1저자 : 하옥현 교신저자 : 오세윤

• 투고일 : 2009. 11. 08, 심사일 : 2009. 11. 09, 게재확정일 : 2009. 11. 26.

* 호남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부교수 ** 호남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I. 서론

정책 순응(policy compliance) 이론은 지능(intelligence) 이론과 보조 혹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고 주장이다.

순응과 지능에 대한 연구는 서로에 대한 고려없이 각자의 분야만을 걸어온 것 같다. 순응을 중요시 하는 정책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순응 수준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고심해 왔다[1] 지능에 대한 연구는 1995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Goleman 교수가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이후, 사회지능 및 실용지능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2].

순응의 연구에서는 무엇이 정책순응과 불응에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들 주요 요인으로서는 정책의 내용, 규제에 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응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및 법적 강제 내용, 정책 내용의 명료성 타당성 및 합리성, 의사전달, 자원 등을 들 수 있다.

지능은 학습지능, 감성지능 및 사회지능의 순으로 발전하고 있다. Goleman 이전까지 지능에 대한 연구는 학습지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최근 관심은 개인이나 조직이 어떻게 하면 상대방 혹은 조직원들과 감정이입(empathy)을 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이 중에서 감정이입과 같은 심리 내적인 부분을 감성지능으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사회지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큰 흐름인 것 같다[3].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연구자의 판단으로 한국의 교육과 정책분야의 현 상황은 아직 학습지능을 중시하고 있으며 감성지능이나 사회지능을 크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규제 상황에서 학습지능적 요인과 사회지능적 요인이 각각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행정규제 정책순응

1.1 규제정책에 대한 순응

규제정책에서는 배분정책과 달리 피규제자(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피규제자와 수혜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배치되어 두 집단간 갈등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집단간의 협상을 통하여 규제의 내용과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정책순응이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정책 대상집단이 정책 내용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4]. 오늘날의 행정규제정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치는 것으로 생활의 모든 면에 규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다. 규제개혁백서에 의한 규제개혁 실적은 금융·재정, 건설교통, 일반행정, 보건복지 등 20개 분야나 된다. [5]. 본 연구에서는 이 규제정책 중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게임방, 노래방 및 음식점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대상으로 한정해 연구하기로 한다.

1.2. 정책 순응의 대상

전통적으로 정책 순응의 주체는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집단인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대두로 정책집행에 민간부분의 여러 중간매개집단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순응의 주체는 정책집행자, 중간매개집단 및 정책대상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6]

첫째, 정책집행자로서 공무원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 책임 및 자원을 부여받고 있다. 이들은 정책을 순집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불순응(Noncompliance)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들 정책 불순응 혹은 불응의 사례로는, 고의적인 의사전달의 조작, 집행 자체의 연기, 정책의 임의 변경, 부집행, 형식적 순응, 정책 취소 시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중간매개집단이란 정책집행을 돕기 위하여 정책집행자로부터 집행의 책임을 위임받은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의 중간매개집단은 지방공무원, 공공 및 민간부분의 행위자가 된다. 지방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에 지방공무원은 공식적인 정책집행자이며, 지방공공기관 및 집행을 위임받은 민간부분의 행위자가 중간매개집단이다. 중간매개집단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들의 순응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간매개집단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들이 규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에게 통제를 가할 수 없어 순응확보가 어렵다.

셋째, 정책대상집단이란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의미한다. 정책대상집단이 수혜자인 배분정책의 경우와는 달리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피규제자인 대상집단의 불순응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요즘은 수혜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피규제자의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어 순응확보를 가능케 하기도 한다.

1.3 규제순응에 대한 기존연구

규제순응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연구를 이시철교수는 아래와 같이 정리 요약하고 있다(7) 즉, 이중열은 규제가 전통적인 감시나 강압에서 벗어나 교육적·협조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소영진의 산업안전 보건 규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부가 일반적으로 이끌고 가는 규제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지향하는 것이 순응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논지를 피력하였다. 김태운은 규제 방향을 시장 친화적으로 (Market friendly) 바꿈으로써 규제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논지를 피력하였다. 박경효와 정운수는 순응 친화적인 (Compliance friendly) 규제개혁의 거시적 실천전략으로 6원칙 17세부 실천원칙을 천명하였다.

1.4 규제순응 척도

한국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여 규제 순응도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규제 인지도를 묻는 3개 항목, 인정도를 묻는 3개 항목, 그리고 준수도를 묻는 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8). 이들 항목의 척도는 규제순응 모니터링 기법을 따르고 있다.

2. 학업지능(Intellectual Intelligence 또는 Intellectual quotient)

1986년 편찬된 국어대사전에서 지능이란 “계산이나 문장 작성 등 일반적으로 지적인 작용이라고 일컫는 일에서, 어느 정도로 성공하는가에 의해 정해지는 적응 능력, 이것은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지능률 등의 수치로 표기함.”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사전에는 학업지능이나 학습지능의 항목은 없다. 이는 1995년 Goleman이 「감성지능」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지능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학업지능(혹은 학습지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전에 정의된 지능은 학업지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능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당시 일국의 정치·사회적 영역과 국제정치·사회관계에 미친 영향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교육열 또는 향학열은 학업지능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학업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 속담에도 ‘낮 놓고 기억(기)자도 모른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 관련시켜보면 규제정책의 집행에 담당하는 공무원과 집행대상자들이 규제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가 혹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와 관련 있다.

학습지능이 가져온 국제정치적 영향력은 어떠하였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미 등 여러 나라의 교육제도와 인간행동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하면 학업지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식을 습득하게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즉, 대표적인 후진국 지원 프로그램인 문맹퇴치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유아사망률을 낮추려는 보건위생 프로그램 등은 지식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최근까지 국내외의 많은 대학에 ‘인간행동 변화’를 목표로 설립되어 있는 ‘행동과학연구소 (Behavior Research Institute)’들도 따지고 보면 학업지능을 중시하는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한국처럼 전후에 독립한 나라들에게 2차대전 전승국들의 원조 혹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그대로 전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9). 이처럼 학습지능에서는 지각 혹은 지식을 중요시 한다.

여기에서 지각은 어떤 정책과 관련된 과정으로 또는 그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으로 이해된다. 지각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감각적 인상을 조직화하고 해석한다(10). 사람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마다 지각하는 내용이 상당히 달라 객관적 사실보다는 지각한 내용이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각을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11) 각종 행정규제의 영향에 대한 집행 공무원과 대상자들의 지각은 주로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지각은 사람과 세상과의 근원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재라 부르는 것의 의미를 전해준다. 따라서 지각은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감각적 정보를 선별·조직·해석·검색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12).

3.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

3.1 사회지능의 의의

사회지능은 1920년 Thorndike가 지능을 일반(학업)지능, 기계적 지능, 그리고 사회지능으로 분류한 데서 비롯되었다(12). Thorndike는 사회지능이란 사람을 이해하고 잘 다룸으로써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Vernon은 타인의 일시적인 기분이나 근본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타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 기술·지식, 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괄하여 사회지능을 넓게 정의하였다(13). Goleman은 2006년에 내놓은 「사회지능: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학문」에서 인간의 심리현상을 수많은 실험결과를 인용하여 기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 Albrecht는 같은 해 저술

한 「사회지능: IQ와 EQ이후의 인간 상호작용에 대한 다중 지능 이론」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회지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Goleman은 사회지능의 개념을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과 그 상황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요소로 정의한다[14].

첫째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은 타인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즉각 감지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나아가 복잡한 사회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원초적인 감정이입 - 타인을 느낌, 비언어적 감성적 신호까지 느낌; 조율 - 타인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고 동조 해줌; 정확한 감정이입 - 타인의 생각 느낌 및 의도를 이해; 사회적 인지 - 사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함 등이다.

둘째 사회적 상황을 활용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리고 그 파악된 상황을 기초로 하여 그 다음에 순조롭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비언어적 수준에서 순조로운 상호작용, 양측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상호작용의 효과가 형성되도록 영향을 미침, 상대에게 필요한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임 등이 포함된다.

결국 사회지능이란 타인의 존재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상대를 리드하여 쌍방 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도록 이끄는 능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15] 다음 두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사회지능에는 사회적 정보를 파악하는 인지적 측면과 어떤 상황에서 유연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행동적 측면이 있다. 둘째, 사회지능은 학업지능과 구분되는 독립된 개념이다. 따라서 지능은 곧 학업지능이라는 종전의 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지능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3.2 사회지능의 차원

Riggio, Messamer, Throckmorton (1991: 695-702)은 사회지능이 정서적인 표현, 민감성, 통제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16]. 정서적 표현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술이고 정서적 민감성은 상대방의 태도, 상황, 단서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요소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다. 정서적 통제는 비언어적 표현과 정서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능력이다.

Wong, Maxwell, Meara는 사회지능이 사회적 지각, 통찰 및 지식 등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17]. 사회적 지각(Social Perception)은 상대방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사회적 통찰(Social Insight)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며 사회적 지식(Social Knowledge)은 예절에 대한 규칙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Silvera, Martinussen, Dahl (2001: 313-319)은 사

회지능이 사회적 정보처리, 기술 및 인식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18]. 사회적 정보처리(Social Information Processing)는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예측하는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의도 행태 표현 느낌 바람 등의 내적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은 구체적인 새로운 상황에서 사회적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은 구체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4. 이론모형

학습지능, 사회지능 및 정책순응을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이론모형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림 1의 이론모형이 구조방정식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구조방정식은 구성개념(Constructs)간 이론적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되도록 권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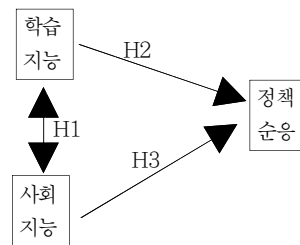


그림 1. 이론모형
Fig. 1. Conceptual framework

본 연구가 확인하고자 하는 주가설은 '정책순응에 미치는 학습지능의 영향력이 사회지능의 영향력보다 작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세 개의 하위가설(Hypothesis)인 H1, H2 및 H3을 얻게 되었다.

구조방정식에서는 독립변수 간 상관성을 가정하지 않으므로 학습지능과 사회지능 사이의 상관성을 가정하는 가설1은 별도의 분석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가설1(H1): 학습지능과 사회지능 간에는 정의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2(H2): 학습지능은 정책순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H3): 사회지능은 정책순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지능이 세 개의 하위구성개념(Sub-constructs: 사회적 정보처리, 사회적 기술, 사회적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 가설3을 세 개의 하위가설로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다.

가설3-1(H3-1): 사회적 정보처리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순응 수준도 높을 것이다.

가설3-2(H3-2): 사회적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순응 수준도 높을 것이다.

가설3-3(H3-3):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순응 수준도 높을 것이다.

본 연구가 이론적, 실제적으로 흥미롭게 주목하는 점은 가설2와 가설3의 회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III. 조사설계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인으로 행정규제 정책을 일선에 집행하는 공무원과 행정규제 정책의 대상인 시민으로서 통·반장이다. 수많은 행정규제 정책은 기초자치단체의 일선공무원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규제대상 시민의 중간에서 통·반장들이 중간매개집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시민에 비해 통반장들이 규제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접근도 용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질문지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일선공무원과 통·반장으로부터 2009년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수집되었다. 질문지 1000매를 3개 자치구청에 배포하고 그 중 795매가 회수되어(회수율 79.5%) 응답에 일관성이 부족한 70매를 제외한 725매를 실제 분석하였다. 실효적 응답률은 72.5%이다.

응답자 725명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공무원 479명, 통반장 176명, 무응답 79명이며 남자 414명, 여자 302명이다(무응답=9). 연령별로 20대 62명, 30대 229명, 40대 204명, 50대 이상 146명이다. 전체 응답자 중 공무원이 통반장보다 많고, 남자가 여자보다 많으며, 20대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는데 이는 통반장에서 20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 중에서는 남성이 많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보다 적으며, 20대와 50대 이상의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5급이상 공무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26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통·반장 중에서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같고, 20대 연령층이 현저히 적은 것이 특징이다.

2. 척도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개의 구성개념이 사용되었다.

첫째, 정책 연구에서 학습지능의 척도로 보통 지각 척도가 이용된다. 지각 척도는 응답자들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해지는 행정규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행정규제를 통한 행정의 발전 가능성, 행정규제의 성공 가능성, 사기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 규제가 응답자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응답자에 의한 변화의 시작 가능성, 응답자에 의한 변화의 수정 가능성, 응답자가 규제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규제내용의 이해정도, 응답자들의 행정규제에 대한 적극성 정도 등이다. 2008년에 행해진 연구에서 뒤의 3문항이 신뢰도 검사에서 탈락하였는데 그 때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77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검토과정에서 3개 문항이 제외되고 6개 문항만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신뢰도는 0.82이다.

둘째 사회지능은 트롬소(Tromsø)의 21개 문항으로 조작화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19], 그 중에서 8, 11, 12, 14번 문항이 신뢰도 검사에서 제외되었다.

사회지능의 세 개의 하위 구성개념 중 사회정보처리기술은 처음의 7개 문항이 해당되며 그 신뢰계수는 0.83이다. 사회적 기술은 7개 문항이나 8, 11, 12, 14번 등 4개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그 신뢰계수는 0.70이다. 사회적 인식은 7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그 때의 신뢰계수는 0.83이다.

셋째 정책순응 척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한 9개 문항 중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20]. 규제인지도를 묻는 문항이 선행연구[21]에서 타문항들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제외하였다. 그때의 신뢰도는 0.73이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을 이루는 세 개의 구성개념들이 가정하는 대로 구분되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지능이 세 개의 하위구성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요인분석 결과 5개의 구성개념으로 나누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법을 사용하고, 회전방법으로 프로맥스 회전을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므로 이를 따랐다.

요인분석 결과 순응, 학습지능, 사회지능이 미리 가정했던 대로 구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회지능도 미리 가정했던 대로 사회정보처리,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인식으로 구분되어졌다. 요인분석에 29개 문항이 사용되었는데 전체적인 문항 설명비율은 51.44%이다.

IV. 분석 및 가설 검증

1. 변수의 기술통계량 검토

1.1 변수의 크기

절대값만을 비교해서는 세 개 변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어렵다(표1 참조). 각 변수의 범위, 최대값 및 최소값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학습지능에서 중앙값이 4이므로 평균은 중앙값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지능 전체의 평균이 중앙값과 일치하고, 정보처리와 사회기술의 평균은 중앙값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사회기술과 사회인식에 대한 변이계수가 .20으로 큰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개인 간 편차 즉 응답자간 반응의 폭이 큰 것을 의미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순응의 평균은 3.09로 중앙값을 약간 상회한다. 세 개의 변수 중에서 사회지능의 전체 평균이 제일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사회기술과 사회인식의 변이계수는 제일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사회인식의 평균이 중앙값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변이계수가 큰 것이다.

표 1. 변수의 기술통계 비교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comparison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최소 값	변이 계수
학습지능	4.16	.79	7	1	.19
사회지능	3.00	.39	4.59	1	.13
정보처리	3.25	.51	4.86	1	.15
사회기술	3.16	.64	5.00	1	.20
사회인식	2.67	.56	4.57	1	.20
순응	3.09	.55	5	1	.17

주: 사례수=725

1.2 주요변수 평균의 공무원과 통반장간 비교

공무원과 통·반장 사이에 주요 변수들의 반응에 차이가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2이다. 유의수준을 5%로 했을 때 사회지능의 두 번째 하위구성 개념인 사회기술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말하자면 공무원보다는 통반장들이 판단하기에 자기들의 사회기술이 공무원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표 2. 평균의 지위별 비교

Table 2. Means comparison by status

	지위	평균	표준 편차	t값(유의확률)
학습 지능	공무원	4.14	.74	-1.98 (.052)
	통반장	4.28	.87	
사회 지능	공무원	2.99	.36	-.69 (.49)
	통반장	3.01	.38	
정보 처리	공무원	3.27	.49	.10 (.92)
	통반장	3.26	.53	
사회 기술	공무원	3.13	.65	2.14 (.03)
	통반장	3.25	.64	
사회 인식	공무원	2.65	.57	-.15 (.88)
	통반장	2.66	.55	
순응	공무원	3.10	.51	-.03 (.97)
	통반장	3.10	.64	

주. 사례수: 공무원=479, 통반장=176

1.3 주요변수 평균의 성별비교

표 3은 변수들의 평균적인 반응 수준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 것이다. 학습지능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없고, 사회지능에서 전체적으로 남녀 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유의수준=5%).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스스로를 사회지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보처리에서 그런 경향을 보인다.

표3. 평균의 성별 비교

Table 3. Means comparison by gender

	지위	평균	표준 편차	t값(유의확률)
학습 지능	남성	4.16	.80	.17 (.86)
	통반장	4.15	.79	
사회 지능	남성	3.02	.38	2.96 (.003)
	통반장	2.95	.35	
정보 처리	남성	3.28	.51	2.30 (.02)
	통반장	3.20	.50	
사회 기술	남성	3.20	.65	1.89 (.06)
	통반장	3.11	.63	
사회 인식	남성	2.71	.59	1.72 (.08)
	통반장	2.64	.52	
순응	남성	3.13	.55	1.96 (.05)
	통반장	3.05	.56	

주. 사례수: 남자=414, 여자=302

사회기술과 사회인식에서는 공히 수치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순응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 순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유의확률이 .050이기 때문에 5%미만이 아니기는 하지만 5%에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주요 변수간 상관분석: 가설1 검증

학습지능, 사회지능 및 순응 등 세 변수와 사회지능을 구성하는 세 하위변수인 정보처리(SI1), 사회기술(SI2) 및 사회인식(SI3) 등 여섯 개의 변수들 사이의 단순상관계수를 표 4에 정리하였다. 사회지능과 사회지능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그 이외의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4. 상관분석
Table 4. Pearson correlations of major variables

	학습 지능	사회 지능	SI1	SI2	SI3
사회지능	.15***				
정보처리	.13***	.56***			
사회기술	.11**	.66***	.15***		
사회인식	-.05	.66***	-.08*	.22***	
순응	.33***	.19***	.15***	.11**	.11**

주1: * .05, ** < .01, *** < .001, 주2: 사례수=725

가설1의 내용인 학습지능과 사회지능 사이의 상관계수는 .15로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유의수준=.01%), 이는 학습지능이 높다고 해서 사회지능도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1은 채택되나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미약하다.

순응에 미치는 여러 변수의 영향을 표4의 맨 아래 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응과 학습지능 사이의 상관계수는 .33으로 상관 정도가 높지는 않다. 사회지능과의 상관계수는 .19로 낮게 나오고 있으며, 순응을 구성하는 하위구성개념과의 상관계수는 .11 ~ .15로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인다.

3. 가설2와 가설3의 검증

3.1 학습지능과 사회지능의 회귀계수 검토

3.1.1 적합지수 검토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모형의 적합지수(Goodness of Fit)를 검토하여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절대적합지수에 세 개의 지수, 증분적합지수에 두 개의 지

수, 그리고 간명적합지수에 한 개의 지수 등 모두 6개의 지수를 가지고 제안모형과 독립모형을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지수에서 본 연구의 제안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해석되어 이 모형이 가설검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표 5. 적합지수 검토
Table 5. Goodness of fits

지수	적합지수						
	절대 적합지수			증분 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EVIC	GFI	RMR	IFI	CFI	AGFI	
값	제안 모형	.03	.98	.017	.86	.86	.91
	독립 모형	.17	.90	.060	.00	.00	.80
최적기준	독립모형보다 작을것	.90 이상	.05 이하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판단	제안모델 우수			아쉽지만 제안모델수용		제안모델우수	

3.1.2 가설검증

가설2와 가설3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표6에 정리하였다. 가설2의 회귀계수가 .20이고 .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고, 가설3의 회귀계수는 .23으로 .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결과적으로 가설2와 가설3은 모두 채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지능의 회귀계수가 .03의 차이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와 가설3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채택한다($\alpha=.001$). 응답자들의 사회지능적 요인의 규제정책 순응에 대한 효과가 학습지능적 요인의 그것보다 크다고 해석하게 되었다.

표6. 가설 검증
Table 6. Hypothesis test

가설	내용	계수	S.E	C.R.	채택 여부
H2	학습지능 --> 순응	.20***	.023	8.92	채택
H3	사회지능 --> 순응	.23***	.056	4.20	채택

주: *** < .001

그림1의 사회지능 대신에 사회지능의 하위구성개념 세 개를 투입하는 모형을 구성하여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해보면 세 개의 하위구성개념 각각이 갖는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낼 수 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2가 된다. 이를 추가적인 설명모형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설3의

하위가설 세 개를 이 모형에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세 개의 하위가설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설3의 영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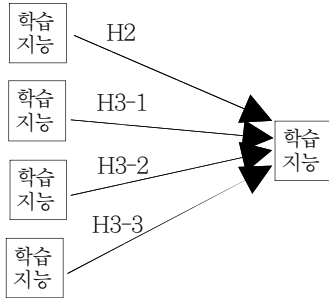


그림 2. 추가적인 설명모형
Fig. 2. Additional model

3.2. 학습지능과 사회지능의 하위구성개념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

3.2.1 모형 적합도 검토

추가적인 설명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합도지수를 독립모형과 비교하여 표7에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네 가설의 회귀계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표7 추가적인 설명모형의 적합지수 검토
Table 7. Goodness of fit for additional model

자수	적합지수							
	절대 적합지수			중분 적합지수			긴명 적합지수	
	EVIC	GFI	RMR	IFI	TLI	CFI	AGFI	
값	제안 모형	.05	.99	.014	.93	.76	.93	.96
	독립 모형	.27	.90	.047	.00	.00	.00	.86
최적 기준	독립모형보다 작을것	.90 이상	.05 이하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판단	제안모델 우수			제안모델 우수			제안모델 우수	

3.2.2 추가적 가설 검증

표8은 표6에서 사회지능의 효과를 세 개의 하위구성개념에 대한 효과로 분리해서 표현한 것이다. 가설3-1은 회귀계수가 .1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alpha=.01$). 가설3-2는 계

수가 .04이면서 표준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C. R. 값이 작아져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표2에서 사회기술의 표준편차가 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설3-3의 회귀계수는 .08로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가설3의 하위가설 중에서 두 번째 가설인 가설 3-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된다. 사회적 기술에 해당하는 7개 문항은 자체로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고 다른 두 개의 하위가설을 이루는 문항들과 함께 섞여 있을 때만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8. 추가적 가설 검증
Table 8. Additional hypotheses test

가설 (H)	내용	계수	S.E	C.R.	채택 여부
2	학습지능 → 순응	.20***	.023	8.85	채택
3-1	정보처리 → 순응	.11**	.037	2.96	채택
3-2	사회기술 → 순응	.04	.038	1.11	기각
3-3	사회인식 → 순응	.08*	.033	2.54	채택

주: * <.05, **<.01, ***<.001

4. 분석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전체적인 분석결과는 표6과 표8에 요약되어 있다. 즉 규제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공무원과 통·반장들의 행정 규제정책에 대한 순응에 학습지능과 사회지능이 다 같이 영향을 미친다. 또 사회지능이 학습지능보다 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사회지능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 중 사회적 기술의 영향력이 없거나 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순응에 사회지능의 영향력이 학습지능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것이다. 학계와 실무계에서 행정규제정책의 순응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지능적 요소와 사회지능적 요소에 균형잡힌 고려를 하고 있는가? 하는 반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 등의 규제 순응에 관한 사안을 보면 규제의 내용에 대한 것 즉 학습지능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표1에서 사회지능 수준을 측정해 놓은 것을 보면 사회적 인식의 수준이 중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67(중앙값=3.0)에 불과하다. 이는 상호간에 사회적 상황을 잘못 인식하거나 반감 혹은 오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학습지능이 규제의 내용을 의미한다면 사회지능은 규제당국과 규제대상이 되는 사람들

과의 관계에 해당한다. 사회지능이라는 개념이 1920년대에 Thorndike 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지만[22] 그 뒤로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위력을 떨치고 있다. 앞으로 행정규제정책의 순응을 위해 이에 주목하고 주의 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정규제정책의 순응과 관련된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응답자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규제와 관련된 학습지능, 사회지능 및 순응의 정도를 살펴보았으나 총체적으로 세 변수의 수준이 높지 않다. 그 중에서도 사회지능의 수준이 제일 낮고 그 하위구성개념 중에서는 사회적 인식의 수준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여성의 경우 더욱 낮다

둘째, 세 변수들 특히 학습지능과 사회지능의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점인데 학습지능과 사회지능간의 상관계수가 .15로 매우 낮다(유의수준=.01%). 학습지능이 높다고 해서 사회지능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학습지능과 사회지능이 규제순응에 대해서 갖는 영향력 비교에서 사회지능이 갖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첫 번째 것과 관련시켜보면 학습지능에 비해 사회지능의 수준은 낮으나, 정책순응에 대한 영향력의 측면서는 학습지능보다 사회지능의 영향력이 더 크다.

학습지능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인생의 초반에 길러지는 것이라면 사회지능은 인생의 전 과정에 걸쳐서 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순응 대상자들의 사회지능 향상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권성언. 사회적압력과 비개인적 영향력이 규제순응에 미치는 영향: 읍주운전단속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128. 2004.
 [2] Goleman, Daniel.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rockman, Inc. 1995.
 [3] Fardner, Howard. Frame of Mind. NewYork: Baisc Books Inc. 1983; Albrecht, Karl. Social intelligence: The new science of success (Beyond IQ, beyond EI, applying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to human interac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6; 문은실. 호감의 법칙. 랜덤하우스. 2006.
 [4] 박경호 · 정윤수. 규제순응 확보전략: 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한국행정연구. 10(2). 2001. 여름호
 [5] 규제개혁위원회. 2003년도 규제개혁 연찬회 자료. 2003.
 [6] 남궁근.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서울: 법문사. 110-114. 2008.
 [7] 이시철. 행정규제 순응요인들 간의 상대적 크기 비교: 규제다원주의적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정부혁신과 정책저항. 249-267. 2005.
 [8] 국무조정실.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지침. 2003.
 [9] Glanz, K, Lewis, F, & Rimer, B. Link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Glanz K., Lewis, F, and Rimer, B. (Ed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9-35. San Francisco, CA. Josses-Bass. 1999.
 [10] Robbins, Stephen P. Organizational Behavior. 121-122.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001.
 [11] 오석홍. 조직이론(제6판), 190-198. 서울, 박영사. 2009.
 [12] 오석홍. 행정학(제2판), 242-249. 서울, 박영사. 2005:
 [12] Kihlstrom, John F. & Cantor, Nancy. Social intelligence. In R. J. Sternberg. (Ed.). Handbook of intelligence, 2nd ed.. 359-379.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3] Vernon, P. E. Some characteristics of the good judge of personal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 42-57. 1933.
 [14] Goleman, Daniel. Social intelligence: The new science of human relationship. 84. NY, Bantam Books. 2006.
 [15] 문태형. 사회지능 척도 개발 연구. 아동교육, 9(2). 127-141. 2000. 6.
 [16] Riggio, R. E., Messamer, J., and Throckmorton, B. Social and academic intelligence: Conceptually distinct but overlapping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2: 695-702. 1991. 7.
 [17] Wong, C. T. Maxwell, S. E., and Meara, N. M. A multitrait-multimethod study academic and social intelligenc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 Education Psychology, 87: 117-133. 1995. 3.
- [18] Silvera, H., Martinussen, M., and Dahl, I. The Tromso social intelligence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social intelligence. Scand. J Psychology, 42: 313-319. 2001. 9.
- [19] 상계논문.
- [20] 규제개혁위원회. 2003년도 규제개혁 연찬회 자료. 147-148. 국무조정실. 2003.
- [21] 이시철. 상계논문
- [22] Thorndike, E. L., Intelligence and its use. Harper's Magazine(140), 227-235. 1920. 1

저자소개



하 옥 현

1980 :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1998 : 프랑스 사회과학대학원 박사
과정(DEA취득)
2005: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2008 - 현재 : 호남대학교 경찰법행
정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정보보안, 정보학, 사이버
범죄, 정보전, 디지털 포
렌식



오 세 윤

1977 : 전북대학교 정치학사
1979 :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1994 : 전남대학교 행정학박사
1985 - 현재 : 호남대학교 경찰법행
정학부 교수
관심분야 : 규제정책, 정책평가, 방법
론, 공공서비스마케팅 ,